

**최근 경기 특징 : 확산하기 어려운 경기 회복세**

미약한 내수 회복세, 수출 경기 둔화,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고용 불안 지속



**세계 경제 여건 악화**

주요국 성장세 둔화	약달러 반전	금리 상승 기조 유지	고유가 지속	교역조건 악화
미국 : 3.5%→3.3% 중국 : 9.0%→8.2%	엔/달러 : 113.5→101.6 유로/달러 : 1.20→1.28 원/달러 : 1,020→1,010	미국 : 3.1%→4.2% E U : 2.1%→2.4% 일본 : 3.6%→4.5%	두바이 : 53.4→72.8 브렌트 : 59.2→80.3 WTI : 60.6→81.8	선진국 : -0.8→-0.6 NIEs : -2.4→-0.1 아시아 : 0.0→-1.1



**2006년 국내 경제 5대 특징**

- 내수 회복 여전히 미흡
- 수출 경기 둔화세 지속
- 금융시장 트리플 강세(주가, 금리, 환율)와 불안정성 증대
- 남북 경협 성장과 정체요인 혼재
- 체감하지 못하는 경기 회복

2006년 미약한 경기 회복  
4.5% 성장



**정부 정책 과제 : 성장 잠재력 확충의 원년**

민간 경제의 자생력 복원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 여력 증대 (가계부채 탕감)</li> <li>•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법인세 인상 억제)</li> <li>• 금융 시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 (증시 수요기반 확충)</li> <li>• 정부 부문의 효율성 제고 (재정 구조 개선)</li> <li>• 수출 경기 급락 방지를 위한 환율 안정 (적정수준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부문 육성 (서비스업, 부품 산업 육성)</li> <li>• 신시장 개척 (중국 이외 신성장 지역 시장 발굴)</li> <li>• R&amp;D 및 기술 혁신 능력 제고 (금융 세제 지원)</li> <li>• 남북 경협의 제도화와 안정적 재원 마련 (경협펀드 조성)</li> <li>• 중장기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인력시스템 개선)</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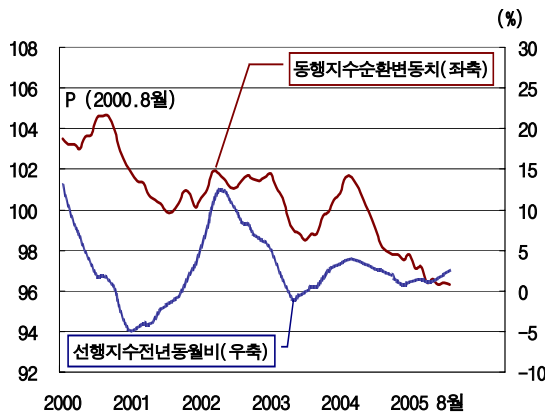
□ 이대로는 2006년에 큰 폭의 경기 회복 어렵다

1. 現 경기 판단과 2005년 한국 경제의 특징

(1) 現 경기 판단 : 확신하기 어려운 경기 회복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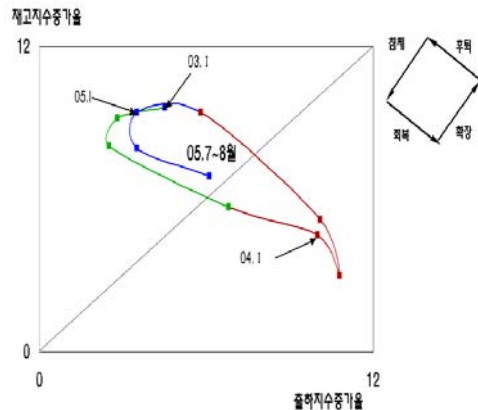
- 2000년 8월부터 지속되던 최장기 경기 하강국면이 2005년 6월을 저점으로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있으나, 회복 강도가 미약하여 향후 경기 상승세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05년 2/4분기의 성장률이 3.3%로 1/4분기의 2.7%를 상회하고 있어, 3/4분기 성장률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상반기중 경기 저점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향후의 경기 전환 시점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월의 1.1%를 저점으로 8월의 2.6%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줌
- 또한 재고/출하 비율의 경우 2005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우하향하며 경기 회복 국면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8월에 96.3으로 7월의 96.4에서 오히려 0.1p 하락하여, 현재 경기 국면이 회복세에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음

< 경기 종합 지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재고/출하 비율 추이 >



(2) 2005년 한국 경제의 특징

○ 미약한 내수 회복세 : 최근 내수 부문이 소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회복 수준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소비 회복 조짐 가시화 : 2004년 -0.9%의 감소세를 기록했던 도소매판매는 전년의 부진에 따르는 기술적 반등 효과와 자동차 등 내구재 부문의 증가세로 2005년 8월에 들어 4.9% 증가함
- 설비투자 부진 : 그러나 설비투자의 경우 올해 초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내수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년				
		1/4	2/4	6월	7월	8월
도소매판매	-0.9	-1.0	2.7	2.8	2.9	4.9
설비투자추계	1.4	4.0	1.4	-3.1	4.2	-0.9

자료: 통계청.

○ 수출 경기 둔화 : 2004년 31.0%의 증가율은 기록했던 수출은 2005년에 들어 주요 수출 품목과 對美 수출 부진으로 10%대의 증가세로 둔화

- 품목별 : 자동차 및 반도체 부문 수출이 각각 2004년 39.0%와 35.7%에서 2005년 1~9월에는 16.0% 및 14.3%로 둔화
- 對美 수출 : 2004년 25.2%의 증가세를 보이던 미국 지역에 대한 수출은 2005년에 들어 -4.6%의 감소세로 반전됨
  - 2005년 1~9월 수출 비중: 1위 중국(22.0%), 2위 EU(15.1%), 3위 미국(14.5%)

<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년					
		1/4	2/4	8월	9월	1~9월	
수 출	31.0	12.7	9.0	18.1	18.7	12.4	
품목	자동차	39.0	30.3	18.8	-0.1	-19.8	16.0
	반도체	35.7	20.2	7.7	15.4	18.2	14.3
지역	중 국	41.7	23.7	23.6	32.5	24.5	24.2
	미 국	25.2	10.7	-12.6	-6.3	-17.0	-4.6

자료 : 산업자원부.

-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시중 부동 자금 증가에 따르는 유동성 확대가 금융 시장 및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시중 부동자금의 증가 : 단기부동자금은 경상수지 흑자, 외인 주식 순매수에 따르는 자본유입과 정부 저금리 정책 등으로 급증
    - 2005년 2/4분기 현재 단기부동자금은 440.1조 원으로 2004년말 405.2조 원보다 약 34.9조 원이 증가
  - 시중 금리의 변동성 심화 : 시중 금리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분위기를 반영하며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유동성 확대, 내외 금리 역전 우려,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 불확실한 요인이 산재하여 시중 금리의 방향성이 자주 전환
    - 국고채 금리 : 2003년 말 3.28%에서 7월 4.23%까지 상승하였으며, 8월중 하향 조정을 보이다 9월 30일 현재 4.6%로 재차 상승
  - 유동성 장세에 의한 주가 폭등 :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적립식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증가,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 수요 확대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가 지속
    - 종합주가지수 : 역사적 최고점인 1,139 포인트 (1994년 11월) 를 돌파하여 9월 30일 현재 1,221.01 포인트를 기록
  - 원/엔 환율의 하락세 심화 : 원/달러 환율보다 엔/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 원/엔 환율의 하락세가 심화됨
    - 2005년 1~9월 원화의 대 달러 절상률은 0.6%에 그쳤으나, 엔화의 절상률은 9.5%에 달하여, 같은 기간 원/엔 환율은 10.12원에서 9.16원으로 급락

< 시중 자금 및 금융 지표 추이 >

		2004	2005		
			1/4	2/4	3/4
자금	단기부동자금 (조 원)	405.2	414.5	440.1	-
금리	국고채3년 (%)	3.28	3.91	4.02	4.60
주가	거래소주가	895.9	965.7	1,008.2	1,221.0
환율	원/달러	1,035.1	1,015.5	1,025.4	1,041.1
	엔/달러	102.56	107.15	110.92	113.01
	원/엔	10.12	9.52	9.27	9.19

자료 :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 주 : 1) 기말 기준이며, 단기부동자금은 6개월 미만의 금융수신을 의미함
- 2) 엔/달러, 원/엔 환율은 9월 29일 기준임.

- 고용 불안 지속 : 미흡한 경기 회복세와 투자 침체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 고용의 질 등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더욱 악화됨
- 전반적 고용 상황 개선 미흡 : 8월 실업률은 2004년의 3.5%보다 높은 3.6%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의 구직 활동 축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7.4%로 외형상 개선된 듯이 보이나 전년동월의 7.3%과 비슷한 수준임
- 시장 구조적 문제 지속 : 한편 고용의 질도 악화되어,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안전 취업자 비중이 2004년 12.8%에서 8월에 19.8%로 급증함
  - 특히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구직단념자는 8월중 14만 8,000명으로 2001년 2월 (14만 9,000명)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주요 고용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1/4	2/4	6월	7월	8월
실업률 (%)	3.5	1. 4.2	2. 3.7	3. 3.6	4. 3.7	5. 3.6
청년실업률 (%)	8.3	9.0	7.8	7.8	8.3	7.4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 (%)	12.8	15.6	11.5	11.1	12.7	19.8
구직단념자 (만명)	10.0	10.9	11.4	11.4	14.1	14.8

자료 : 통계청.

2. 2006년 세계 경제 여건의 5대 특징

○ (세계 주요국 성장세 둔화) 2006년 세계 경제는 일본, 유로 지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전체 성장률은 2005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것임

- 미국 :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와, 고유가, 금리 인상에 의한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 위축 가능성이 높아 2006년 경제성장률은 2005년의 3.5%보다 0.2%p 낮은 수준인 3.3%를 기록할 전망
- EU : 고용 시장의 개선 지연 등으로 소비 침체 우려가 높으나, 동구권 편입에 따르는 역내 교역 증대에 따르는 기업 설비투자 회복, 세계 경제 성장세 유지에 의한 수출 신장세 지속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대가 예상됨
- 일본 :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2006년에도 2005년과 같은 2%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경기 둔화, 고유가 지속 등의 대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경기 재침체의 우려가 상존함
- 중국 : 과잉 투자에 의한 기업 수익률 악화, 동부 연안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불안,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 절상에 따르는 수출 둔화,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 지속 등으로 2006년 경제성장률은 8.2%에 머무를 전망임
  - 다만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세계 박람회, 서부 대개발 사업 등의 공공 수요 확대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지방 정부의 반 경기 안정책이 지속될 경우 9%대의 성장률도 가능

< 2006년 세계 경제 전망 >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E)	2006(E)
세 계	4.0	5.1	4.3	4.3
미 국	2.7	4.2	3.5	3.3
E U	1.3	2.5	1.6	2.1
일 본	1.4	2.7	2.0	2.0
중 국	9.5	9.5	9.0	8.2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 (弱달러 반전) 2005년 다소 개선 조짐을 보이던 美 쌍둥이 적자가 2006년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 경기의 하강세로 다시 악화될 우려가 높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통화 다변화 가능성으로 약세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 고유가에 따르는 원유 수입액 증가, 對 중국 무역 역조 등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4년 6,681억 달러에서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7,590억 달러 및 8,052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GDP 비중은 2004년의 4.0%에서 2005년의 3.7%로 개선될 전망이나, 2006년에는 성장 둔화에 따르는 조세 수입 감소로 3.9%로 확대될 예상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 주요 투자 은행들의 환율 전망 >

(단위: 엔, 달러)

구 분	2005 3/4분기	4/4분기	2006년 2/4분기	3/4분기
엔/달러	113.5	106.9	105.3	101.6
달러/유로	1.2026	1.2586	1.2600	1.2800

주 : 투자은행 12개사의 평균치임.

○ (금리 상승 기조 유지) 美 FRB는 2006년에도 고유가에 따르는 물가 불안 우려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美 시장 금리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국 금리도 상승하는 등 세계적인 금리 상승 추세가 진행될 전망

- 美 연준위(FRB)는 2004년 6월~2005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정책 금리를 인상(2004년 6월말 1%에서 2005년 9월말 현재 3.75%로 2.75%p 인상) 하였으며, 2006년에도 고유가에 따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금리 인상을 지속할 전망
- 이에 따라 미국의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소의 시차를 두고 일본과 EU 지역의 시장 금리도 연쇄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 주요국 단기 금리 추이 및 전망 >

(%)

구 분	2003	2004	2005 (E)	2006 (E)
미 국	1.0	1.4	3.1	4.2
E U	2.3	2.1	2.1	2.4
일 본	1.2	1.8	3.6	4.5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주 : 미국은 3개월 재정증권, 일본은 3개월 CD금리, 유럽은 3개월 EURIBOR.

○ (高유가 지속) 석유 수요 확대, 산유국들의 석유 채굴 능력 저하 등으로 수급 불일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져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06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유지되어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석유 채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OPEC의 추가 증산도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유가 상승은 다소의 시차를 두고 원자재에 대한 채굴 및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경제를 비롯한 BRICs 등 신흥 개도국의 성장세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CERA의 국제유가 전망 >

(단위: 달러/배럴)

비 고	기준 유종	2004년	2005년 (E)	2006년 (E)
기준유가	Dubai	33.69	51.73	49.00
	Brent	38.26	57.06	53.00
	WTI	41.49	58.55	54.50
고유가 (공급부족)	Dubai	33.69	53.38	72.75
	Brent	38.26	59.20	80.25
	WTI	41.49	60.63	81.75

자료 :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주 : 전망 시점은 8월 30일.

○ (교역 조건 악화) 2006년 세계 경제는 외형상 교역량이 증가되어 무역 이익이 확대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고유가 지속으로 非 석유 수출국들의 교역 조건 악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2006년 석유 수출 국가들이 포함되어 중동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非 석유 수출 국가들의 교역 조건은 2005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교역 조건이 악화되는 선진국과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우, 고성장을 기록하지 않는 이상 기업 채산성과 가계 구매력 약화로 체감 경기는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경제권 교역 조건 증가율 추이 및 전망 >

(%)

		2002	2003	2004	2005 (E)	2006 (E)
교역 조건	선진국	0.9	1.6	0.0	-0.8	-0.6
	NIEs	-0.8	-2.9	-1.7	-2.4	-0.1
주요 개도국	아시아개도국	0.7	-0.2	0.2	0.0	-1.1
	중동	4.6	2.1	11.1	24.6	6.7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5.9



### 3. 2006년 국내 경제 전망

#### (1) 2006년 경제 전망의 개요

○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어 2005년 3.8%, 2006년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의 점진적 회복세와 수출의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내수 여건 개선 속도가 미흡하여 2006년 경제성장률은 4.5%에 그칠 전망
  - 단 유가, 환율 가치가 급등세를 보이거나, 정부 정책 대응이 미흡할 경우 3%대의 성장률로 재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함

< 2005~2006년 경제 전망 >

구 분		2004	2005		2006 (E)	
			상반기	연간 (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4.6	3.0	3.8	4.5	
	최종소비지출 (%)	0.2	2.3	2.6	3.6	
	민간소비 (%)	-0.5	2.0	2.5	3.5	
	총고정자본형성 (%)	1.9	1.2	3.1	3.1	
	건설투자 (%)	1.1	-0.2	0.5	1.5	
	설비투자 (%)	3.8	3.0	4.3	5.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76	87	140	8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달러)	294	125	230	120
		수출 (억 달러)	2,538	1,366	2,800	3,070
		수출 증가율 (%)	31.0%	10.8%	10.3%	9.6%
		수입 (억 달러)	2,245	1,241	2,570	2,950
		수입 증가율 (%)	25.5%	14.8%	14.5%	14.8%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3.6	3.1	3.0	3.2	
	실업률 (%)	3.7	4.0	3.6	3.5	
금융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45	1,015	1,020	1,010	
	국고채금리 (평균, %)	4.1	3.9	4.2	4.6	

(2) 2006년 한국 경제의 5대 특징

○ (완만한 내수 회복) 그동안의 부진에 따르는 기술적 반등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투자는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됨

- 민간소비 회복 : 소비 심리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 효과 등으로 2004년의 2.5%를 상회하는 3.5%의 성장세가 전망됨

- 가계 근로 소득의 주요 원천인 고용은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세 미약, 고용 흡수력이 높은 건설업의 부진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특히 가계 부채/GDP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소비 회복을 제약

< 소비 및 소비여건 지표 추이 >

(%)

구 분	2003	2004	2005		
			1/4	2/4	3/4
도소매판매증가율	-1.0	-0.9	-1.0	11.0	3.9
제조업임금상승률	8.8	9.9	8.4	11.0	-
실업률	3.6	3.7	4.2	3.7	3.7
가계부채/GDP	61.8	61.0	59.6	61.4	-
CSI(통계청)	94.7	74.2	110.4	92.2	90(8월)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1) 2005년 3/4분기는 7~8월 평균

2) 2005년 분기 가계부채/GDP 비중은 추정치임.

- 설비투자 회복 : BSI, 국내기계수주 증가율과 같은 선행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5년의 4.3%보다 소폭 상승한 5.5%가 예상됨

- 3/4분기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20%대를 상회하고 있고, 설비투자 조정압력도 4.0%p로 상승하고 있어, 설비투자 회복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전경련 BSI도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건설투자 부진 : 정부의 공공 건설 발주 확대, 종합투자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민간 부문이 위축되어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부진할 전망
  - 특히 8.3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6년에 주택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투자 및 투자 여건 지표 추이 >

(전년동월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1/4	2/4	3/4
설비 투자	동행	설비투자추계	-2.3	1.4	4.3	1.4	1.7
	선행	설비투자 조정압력	1.9	5.9	-0.1	1.6	4.0
		국내기계수주	-8.5	6.8	-6.8	-12.2	21.5
		BSI	100.4	80.9	119.2	105.1	111.4
건설 투자	동행	건설기성액	16.6	11.0	2.8	10.3	5.1
	선행	건설수주액	19.3	-5.3	24.8	40.5	13.0

자료 : 통계청, 전경련.

- (대상 지역별 수출 경기 차별화) 세계 교역량 증대로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좋은 편이나, 지역별로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부진한 반면 BRICs 지역에 대해서는 호조를 보이는 수출 경기 차별화 현상이 예상됨
  - 2005년 들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선진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됨
  - 그러나 현재 수출 대상 1위 지역인 중국 등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06년 수출은 9.6% 증가한 3,07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수출 및 수출 선행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9	2006 (E)
수출증가율	-12.7	8.0	19.3	31.0	12.4	9.6
수입증가율	-12.1	7.8	17.6	25.5	16.7	14.8
경상수지	80	54	119	276	97	80
OECD경기선행지수	-3.0	2.6	2.9	3.7	0.3 (1~8월)	-
세계 교역량 증가율	0.2	3.3	4.9	9.9	7.4	7.6

자료 : 산업자원부, IMF, OECD.

주 : 1) 세계 교역량 증가율의 2005년 및 2006년 수치는 IMF 전망치임

2) OECD 경기선행지수는 기말 기준임.

- (금융 시장 트리플 강세 속 불안 요인 증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 및 물가 안정에 따른 금융자산 수요 증가,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으로 주가, 채권, 원화의 트리플 (Triple) 강세가 나타날 전망
  - 주가 : 수급 요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전망
    - 2006년에도 부동산價 안정, 간접투자 상품 활성화에 따르는 가계 자금의 증시 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다
    -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르는 대외신인도 개선 요인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에 유입되었던 자금의 증시 이탈도 예상됨
    - 향후 경기 회복세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상승 정도가 결정되고, 급격한 주가 조정 국면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금리 : 정책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는 물가 안정, 장기채 중심의 채권 수요 증대 등으로 연평균 4.5~4.6% 내외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
    - 정책 금리는 경기 회복세에 적응하는 수준 정도의 인상 기조가 예상되나,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한편 부동산 시장 자금의 이탈, 물가 안정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기대 수익률 상승 등으로 장기채 중심의 채권 투자가 확대되면서 장기 금리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 원화 환율 : 글로벌 달러 약세, 위안화 절상, 경기 회복 등의 상승 요인으로, 2005년보다 소폭 절상된 연평균 1,010원대가 전망됨
    - 대외적으로는 원화 가치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 위안화의 추가 절상 등이 완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예상임
    - 국내적으로도 경기 회복, 북핵 관련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으로 통화 가치의 국내 펀더멘탈이 개선될 전망이다
  - 단 정부의 정책적 실수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거나, 국제 유가가 예상 범위를 넘어 급등할 경우 금융 지표들의 변동성이 심화되거나 방향성마저 불투명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남북 경협 한 단계 성숙) 2006년 남북 경제 협력 관계는 경협이 제도화와 인프라 개선, 개성 공단 개발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남북간 교역 증대가 예상됨
  - 2004년 감소하였던 남북간 교역증가율은 2005년 1~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4.4%로 급등세를 나타냄
    - 특히 개성·금강산 사업 확대 등 (2005.1~7월 : 55.7%→63.8%)의 상업적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2006년에도 북핵 위기 완화에 따르는 경협이 제도화 진전, 인프라 개선 등의 여건이 마련되어, 남북간 경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전력과 통신,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 등의 SOC 확충과 함께,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의 남북경협 사무소 개설과 통행·통관 절차 개선 등에 합의
    - 6자 공동성명의 채택(9. 19)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변화와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등 이전보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기대됨
    -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과 관광 지구의 확대 등으로 상업적 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북한의 6자 회담 합의 이행 부진에 따르는 北美간 외교 관계 악화, 대북 송전 사업 등을 위한 경협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제 협력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남북 교역 및 북한 경제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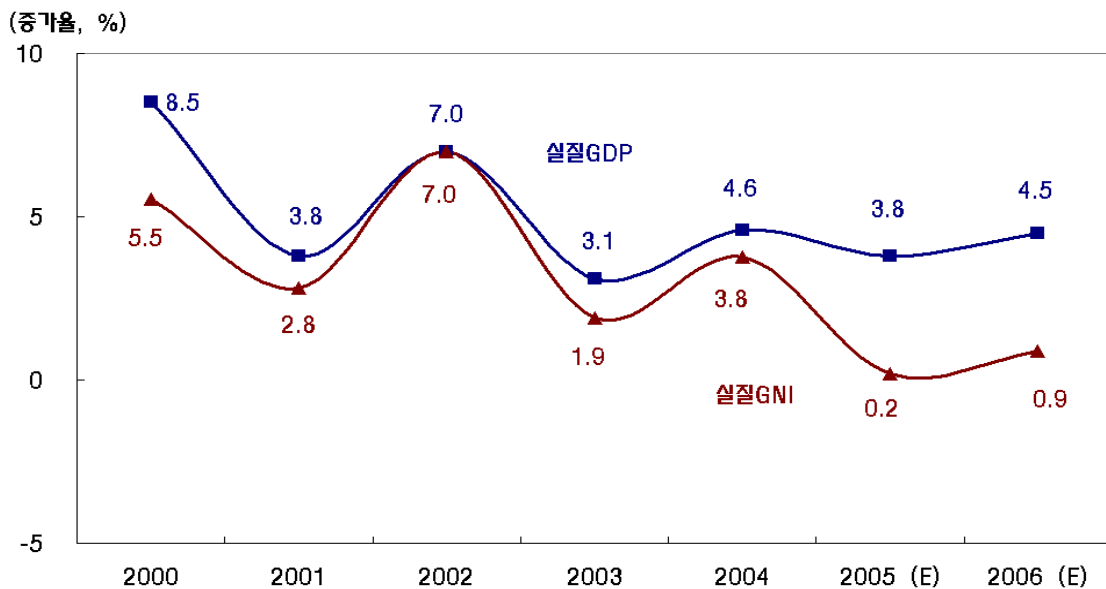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8
교역액 (억 달러)	4.25	4.03	6.42	7.24	6.97	5.81
교역 증가율	27.5	-5.2	59.3	12.9	-3.8	34.4
북한 경제성장률	1.3	3.7	1.2	1.8	2.2	-
북한 1인당 GNI (달러)	757	706	762	818	914	-

자료 : 통일부, 한국은행.  
주 : 반입과 반출 합계임.

○ (체감하지 못하는 경기 회복) 2006년은 내수 경기 회복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고유가 지속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미흡으로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4.5%가 예상되나, 고유가에 따르는 유가 급등으로 수입 단가지수의 상승세가 빨라져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GNI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1%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실질 GDP 및 실질 GNI 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IMF Database.

주 : 2005년과 2006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GNI 추정 방법
  - IMF의 2005년과 2006년 NIEs 국가들의 상품교역조건지수 증가율 전망치인 -2.4% 및 -0.1%로 해당년도의 상품교역조건을 도출
  - 2005년과 2006년 수출 단가 지수는 2002~2004년 증가율 평균치를 사용
  - 실질 무역 손익 = 당해년 가격 수출입차 / 환가지수 - 기준년 가격 수출입차  
단, 환가지수 = (수출가격지수 + 수입가격지수) / 2
  - 2005년과 2006년의 실질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은 2002~2004년 증가분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 2005년 실질 GNI증가율은 2005년 상반기 증가율인 0.2%를 가정

4. 정부 정책 과제 : 성장 잠재력 확충의 원년

(1) 기본 방향

- 한국 경제가 그동안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외환 위기 이후 성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그 회복 속도를 크게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2006년부터 본격화되도록 성장잠재력 확충에 경제 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2) 세부 과제

- 민간 경제의 자생력 복원
  - 소비 여력 증대 :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
    - 가계 부채 탕감 :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안정이 필요하며, 소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풀기 위한 일시적인 가계 부채 탕감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감세 정책 : 또한 근로자들의 실질 근로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소비 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을 겨냥한 조세 감면 및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필요함
  -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 지속적인 경기 회복세 유지, 고용 안정,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 등을 피하고, 무엇보다 기업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BT, NT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이들 신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증대
  - 한편 2006년에 동시 지방 선거 등 정치 불안이 심화될 경우, 급진적인 개혁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사회 내 反 대기업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 정부의 親 기업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노력이 요구됨
- **금융 시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증권 시장 및 PEF 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과 실물의 괴리 현상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단기 부동 자금을 흡수해야 할 것임
- **적정 금리 수준 유지** : 금리의 금융 정책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적정 금리 수준을 유지
  - **간접 주식 투자 관련 세제 인하** : 시중 부동 자금을 흡수하여 주가의 안정적 상승을 보장하고, 주가 상승이 가계 소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적립식 펀드 등에 대한 세제 인하가 필요함
  - **규제 완화를 통한 사모투자펀드 (PEF) 시장 확대** : PEF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투자자 수나 최소 출자 금액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정부 부문의 효율성 제고** :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효율화 등을 통해 성장 중심의 재정 지출 증대 정책을 통해 재정의 경기 조절력을 확대시켜야 함
- **성장 중심의 재정 지출** : 복지 부문 등 분배 편향적인 재정 지출보다는 경기 회복력 확충을 위해 SOC 투자 등과 같은 성장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가 절실함
  - **정부의 자구 노력 필요** : 재정 지출 확대에 필요한 세원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경제성 없는 정부 사업 정리,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수출 경기 급락 방지를 위한 환율 안정** : 가격 경쟁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수출 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환율의 급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외환 시장 관리 능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 내수 부문 육성 :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경쟁력 향상,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내수 육성책의 지속적 실천이 요망됨
- 신시장 개척 : 중국과 북미 중심의 국내 수출선을 BRICs나 동구 유럽 등 새로운 고성장 지역으로 전환하는 보다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함
  - 2005년 1~8월 현재 대 BRICs 국가의 수출 비중은 25.6%에 달하고 있으나,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수출 비중은 4%에도 미치지 못함
- R&D 및 기술 혁신 능력 제고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출연 기관과 대학의 기술 혁신 능력을 제고해야 함
- 남북 경협외 제도화와 안정적 재원 마련 : 경협 인프라 확충과 법적·제도적 합의의 실질적 이행, 남북 회담의 정례화 등을 통해 남북 관계 및 경협외 제도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
  - 특히 대북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조성이나 일정 규모에 한해 자금 출처를 면제해주는 중장기 저리의 국공채 발행 등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됨
- 중장기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생산성 향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 : 부족한 노동 공급 인력을 확보를 위해 퇴직연령연장법안 마련, 고령 인구 기술 지원 센터 운용 등이 필요함
  -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 : 경영 및 생산 프로세스 개선, 근로 조건 유연화 등을 도입한 신인사 제도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대책 마련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